

“아름다운 산골 이야기보따리 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산에서 살겠다고 되뇌어온 했습니다. 정말 산속에 거처를 옮기려고 계획까지 세웠지만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섬진강도깨비마을 촌장인 김성범은 산을 동경했다. 지금 그는 십대 때 가졌던 꿈을 곡성 섬진강 산골에서 실현해가고 있다. 어린이들과 책놀이, 숲놀이를 하며 '도인'처럼 살고 있다.

그를 지칭하는 수식어는 많다. 동시, 동요 작가이자 평론가, 싱어송라이터, 조각가, 기획자. 이쯤 되면 그는 전천후 예술가 또는 '르네상스 인간'으로 불려도 될 것 같다.

김성범 촌장이 최근 에세이집 '품안의 숲 따습네' (지역)를 펴내 눈길을 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동화로 등단하기도 했던 그는 이후 문학동네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깨비'와 '호랑이' 등을 모티브로 한 것이 많다. 그만큼 전통 서사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매개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품을 써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번 에세이집은 현재의 도깨비마을을 일군 김 촌장의 산골일기다. 지금은 전국적인 명소가 돼 가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사람이 찾지 않는 심산유곡이었다.

그는 몸 하나 누일 공간만 마련해둔 상황에서 산골생활을 시작하며 청소년기에 그렸던 미래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일궈나갔다.

책 발간 소식에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대신에 그의 휴대폰에서는 언제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동요가 들려온다.

“호랑이가 나타나 ‘난 몇 살이나’, ‘아름살인데오’, ‘참 맛있는 나이구나’, ‘난 말썽장이어서 안 맛있을 거예요’”

컬러링이 흘러나오고 얼마 후 연결된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웃음을 머금고 있다. 파마기가 풀어진 긴 머리를 휘날리며 서글서글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눈 딱 감고 저질렀어요. 품격 있게 말하면 용기를 냈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에 다소 능숙하지 못했나 봐요. 승용차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을 선택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자’라고 마음먹



섬진강도깨비마을 김성범 촌장 에세이 '품안의 숲 따습네'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에 동화로 등단

었죠.”

김 작가는 도깨비마을에 들어온 이유를 그렇게 말했다. 글을 쓰고 조각을 하며 동요를 만들면서 살고 싶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bumstar'라는 닉네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섬진강 일기'라는 방을 열었다. 그렇게 두서없이 쓴 글들이 세월이 흘러 오늘의 책으로 이어졌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다. “홈페이지를 유지할 의미가 없었던 때가 있어 폐쇄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자 너무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그가 쓴 글을 다룬 방안 등이 있었다. 너무도 고마웠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건 그 마음이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깨비마을로 들어온 지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맹위를 떨쳤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전의 메르스, 사스, 섬진강 범람 등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환경 파괴와 연관돼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돌아보면 산골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았습시다. 그럼에도 이곳에서의 생활은 내 삶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깥 세상에 살 때는



김성범

늘 짜여진 시간표 속에 나를 가두며 다그치고 살았는데 지금은 '멍어리 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멍어리 시간은 많은 선물보따리를 풀어 놓았죠.”

도깨비마을은 이제 하나의 숲체험원으로 자리 잡았다. 풀과 나무, 곤충과 산짐승들과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사는 삶은 경이로움의 연속이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말한다. “세상 사는 일이 무료하거나 힘들 때 산골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번 책이 작은 응원이 됐으면 한다”고

한편 김 작가는 지금까지 장편동화 '숨 쉬는 책, 무익조', '도깨비살' 등과 그림책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요!', '도깨비가 그림책 읽는 밤' 등과 동시집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 '콧구멍으로 웃었다가 콧구멍이 기억한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의재미술관 전경. (광주일보 자료)

‘자연과 미술-의재 허백련’ 인문강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8일 의재미술관

의재 허백련(1891-1977)은 남종 문인화의 대가다. 소치 허유와 추사 김정희 등으로부터 이어받은 남조화의 맥을 새롭게 해석한 인물로 그의 예술에는 인문주의와 격조, 깊은 사유가 담겨 있다.

의재 허백련을 모티브로 한 인문강좌가 열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오는 8일(오전 9시 30분) '자연과 미술-의재 허백련(許百鍊)'을 개최한다.

열세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지역의 인물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문화의 주제성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마주하기'는 자연과 어우러진 의재미술관의 공간과 전시를 도슨트 해설과 함께 관람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음

미하기'는 이선옥 의재미술관 관장이 허백련의 그림과 생애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의재가 강조한 차(茶) 정신을 나누고 차를 음미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세 번째 '다가가기'는 '허백련 춘설현' 현장을 답사하고 참가자들의 만남과 소통이 예정돼 있다.

선착순 20명, 2만원(회원 1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덕진 이사장은 “이번 인문강좌와 공간 탐방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의재 허백련의 예술과 인문정신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 메타버스 미술관’ 전시 콘테스트 전남문화재단, 8일까지 진행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에서 전시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지난 28일 시작한 이번 콘테스트는 오는 8일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된다. 재단이 전남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재단이 만든 '남도 메타버스 미술관'에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이번 전시 자체를 작품 포트폴리오로 활용해 예술인들의 커리어를 돕고 창작활동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전남지역에 소재를 둔 문화예술단체 혹은 전남 거주 예술인, 3인 이상의 예술인 그룹이 참가

할 수 있다. 신청은 남도 메타버스 미술관에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 전시관에 미술작품을 업로드하면 된다. 실제 전시공간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을 임대받아 진행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콘테스트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전시프로그램에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이라며 “사·공간 제한 없이 작품을 아카이빙해 인지도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또는 남도사이버갤러리에서 확인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남도 메타버스미술관 전시 모습. (전남문화재단 제공)

문피아, 개인작가 웹소설에도 유료화 기능 도입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에서 연재 중인 개인 작가들에게 자기 작품을 유료로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부여된다.

네이버웹툰은 자회사 문피아가 이달 말부터 개인 작가 작품도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 개인 유료화 기능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문피아에서는 개인 작가 작품은 무료로만 연재됐으며, 작가가 콘텐츠 제공사(CP사)와 계약해야 유료 전환이 가능했다.

개인 유료화 기능이 도입되면 CP사와 계약하지 않은 개인 작가, 아마추어 작가들도 자기 창작물로 수익을 내기 쉬워질 전망이다. 유료화 전환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피아는 올 하반기 내 서재 기능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멀티 프로필 기능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내 서재는 연재 중인 작품을 관리하는 공간이며, 멀티 프로필은 작가 1명에게 최대 3개까지 프로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멀티 프로필을 이용하면 작가가 기존 연재작과 다른 장르의 작품에 도전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설명이다.

손제호 문피아 대표는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과 개인 작가들의 창작 자유도를 높이고 수익화를 지원하고자 (이 같은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가 친화적인 창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